

홍명보호 볼리비아전, 중원·수비는 '물음표'

홍명보호가 볼리비아전 승리로 거듭 강 조했던 '결과'는 쟁겼으나, 새로운 선수들로 꾸려진 '중원 조합'과 오랜만에 가동한 '포백 수비' 조직력에 '물음표'가 붙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대표팀은 지난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LAFC)의 선제골과 조규성(미트윌란)의 추가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 한국이 '76위' 볼리비아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포트2 수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번 경기 관련 포인트는 부상으로 낙마한 '중원 사령관' 황인범(페예노르트)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였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함께 한 백승호(비림)와 박용우(알아인)도 이탈한 상황이라 고민이 깊었다.

홍 감독이 선택한 돌파구는 '포메이션 변화'였다.

북중미행 확정 후 본선을 대비해 '플랜 B' 3-4-3 전형을 갖고있던 홍 감독은 아시아 예선 간 활용했던 '플랜 A' 4-2-3-1 전형을 다시 꺼냈다.

공격형 미드필더 1명과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해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중원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베테랑 미드필더 이재성(마인츠)이 2선, 김진규(전북)와 원두재(코르파칸)가 3선에서 축구대표팀 허리를 책임졌다.

이명재(대전), 김태현(가시마),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민환(대전)은 오랜만에 포백을 이뤘다.

한국은 경기 초반 볼리비아를 몰아세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압박에 크게 흔들렸다.

FIFA 랭킹이 50계단 이상 차이 나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했던 중원과 수비 모두 합격점을 주기 어려웠다.

후반전 손흥민의 환상 프리킥 특점이 아니었다면 답답함이 이어지다 자칫 승리를 놓칠 뻔한 분위기였다.

전반 26분 엔소 몬테이로와의 일대일 위기, 후반 25분 페르난도 나비의 대표골 슈팅을 모두 막은 김승규(도쿄)의 선방도 주요했다.

송영주 해설위원과 박찬하 해설위원도 중원과 수비 불안함을 지적했다.

송 위원은 "홍 감독 얘기대로 결과는 쟁겼지만 내용에선 발전된 부분을 찾기 어려웠다"며 "특히 황인범과 백승호의 부상



14일 오후대전 유성구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경기, 한국 선수들이 2-0으로 승리한 뒤 그라운드를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손흥민·조규성 연속골로 볼리비아전 2-0 승리

'스리백→포백' 전환했지만, 경기력은 '글썽'

으로 중원을 어떻게 짤지가 매우 중요했는데, 원두재와 김진규가 상대 압박에 고생했다. 방향 전환 패스나 롱패스 등 빌드업이 되지 않으면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갑작스럽게 포백으로 변화했는데, 공격적인 운영을 위한 변화라 짐작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했다"며 "황인범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잘 풀리 날은 황인범이 중앙에서 활약할 때다. 김진규에게 비슷한 역할을 맡겼는데, 후반전에 살아나긴 했지만 고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월 만에 꺼낸 포백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홍 감독이 '플랜B'를 스리백이라고 얘기한 건 '플랜A'가 포백이라는 의미"라고 운을 떼 송 위원은 "상대에 따라 포백과 스리백을 활용할 계획으로 본다. 우리가 제압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하는 상대로는 포백, 우리가 열세고 지켜야 하는 경기에서 스리백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 "이번엔 FIFA 랭킹 76위인 볼리비아를 상대했기 때문에 승리해야 하는 경기였다. 그래서 포백을 썼는데, 솔직히 김민재가 일방적 활약을 펼치고 김승규가 좋은 활약을 보여서 실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김민재가 달려 나가면 그 자리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김태현은 아직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나가면 커버해야 하는 수비 불안은 스리백이든 포백이든 마찬가지다. 스리백과 포백을 구분하기보다, 그 앞에 어떻게 저지선을 만들까를 더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포백 전환보단 조합이 우려스러웠다"며 "3차 예선에선 김민재-조유민 조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만에 전환임에도 김민재를 우측으로 보내고 김태현을 파트너로 꺼냈다. 특히 김민재는 브라질전에서 스리백 중앙, 파라과이전에서 스리백 왼쪽을 뛰었다"며 물음표를 던졌다.

축구대표팀은 오는 18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맞대결을 벌인다.

모하메드 쿠두스(토트넘), 토마스 파티(바이에른), 조던 아예우(레스터) 등 핵심 선수들이 제외돼 '2군'에 가까운 가나를 상대로 얼마큼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이다.

송 위원은 "여전히 손흥민은 클래스를 보여줬고, 오현규(헝크)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가 기대된다. 조규성은 1년 8개월 만에 돌아와 복귀골을 넣었다는 게 희소식이다. 가나전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과 희망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공격 보안을 짚으며 "연속성, 일관성, 공격 상황에서 찬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득점이 되지 않아도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어떻게 페널티 박스 안 숫자를 늘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한국 3회초 공격 1사 주자 2, 3루서 문보경의 내야명봉 때 3루 주자 안현민이 홈인한 뒤 더그아웃에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뉴시스

안현민·송성문 터졌지만... 홈런 이후 답답했던 공격력 일본과 평가전서 장단 6안타에 머물러 4회 2홈런 이후 8회 1점이 유일한 득점

경기 초반 안현민(KT 위즈)과 송성문(키움 히어로즈)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한국 야구 대표팀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으나 왜곡의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운드가 급격히 붕괴된 이후 타선의 공격마저 답답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평가전 1차전에서 4-11로 졌다.

한국은 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체코와의 평가전 1차전에서 장단 5안타에 그쳐 3득점을 생산하는 데 머물렀으나 9일 체코전에서 장단 17안타로 11득점을 뽑아내면서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다.

그러나 일본을 만난 한국 타선은 또다시 공격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3회까지 일본의 선발 투수 쇼타니 류헤이의 패투에 막혀 출루하지 못했던 한국은 투수가 모리우라 다이스케로 바뀐 이후 침묵을 껴들었다.

4회초 선두 타자 신민재(LG 트윈스)가 중전 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튼 뒤 안현민(KT 위즈)이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송성문(키움 히어로즈)이 모리우라의 빠른 공을 잡아 당겨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솔로포를 폭발했다. 안현민과 송성문의 백투백 홈런에 힘입어 3-0으로 앞선 한국은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그러나 2개의 홈런 이후 한국은 일본 마운드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

었다. 한국이 3-9로 끌려가던 6회초 신민재가 내야 안타로 1루 베이스를 밟았지만, 안현민과 송성문이 각각 우익수 뜬공,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고, 후속 노시환(한화 이글스)마저 2루수 땅볼에 머물렀다. 7회초에는 절호의 득점 기회가 무산됐다.

문현빈(한화)과 김주원(NC 다이노스)이 연거푸 볼넷을 골라내 2사 1, 2루 찬스를 맞았지만, 박해민(LG 트윈스)이 투수 앞 땅볼로 아웃돼 그대로 이닝이 종료됐다.

한국은 8회초 신민재의 2루타, 송성문의 진루타로 일군 2사 3루 찬스에서 한동희(국군체육부대)가 1루수 땅볼에 그쳤으나 상대 1루수가 공을 뒤로 빠뜨린 사이 3루 주자 신민재가 홈 베이스를 밟아 한 점을 만회했다.

이후 문보경(LG)이 볼넷을 얻어내며 2사 1, 2루로 이어졌지만, 박동원(LG)이 중견수 뜬공에 막혔다.

9회초에서도 무득점으로 마친 한국은 이날 장단 6안타에 머물렀다. 안현민과 송성문의 홈런이 터진 후에는 고작 1득점만 추가했다.

대포를 폭발한 안현민과 송성문, 3개의 안타를 날린 신민재, 멀티 홈런에 성공한 김주원의 활약은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기대를 모았던 노시환과 문보경이 나란히 3타수 무안타로 부진했고, 체코와 평가전에서 맹타를 휘둘렀던 문현빈은 볼넷 한 개를 얻었지만, 3타수 무안타를 작성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